“선학원에게서 유치원 지키고자 명의 회수”

[인터뷰] 총림사 유치원 원기증자 조윤석 이사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인 총림선원 토지를 일방매각한 데 이어 총림선원 창건주가 운영하던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재단 등록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정황이 本紙 보도를 통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유치원은 한 재가불자가 지역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 개인에게 지정기탁한 것으로, 현재 원기증자가 매매계약 형태로 다시 명의를 회수한 상황이다.

유치원 · 어린이집 원기증자 조윤석 이사장<사진>은 本紙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총림선원이 아니라 탁명 스님 개인에게 기증한 것”이라며 “명의를 다시 회수해 온 것은 유치원 · 어린이집을 선학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이라고 밝혔다.

“군포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결국 할머니 · 할아버지 손 잡고 절에 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 불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불교가 잘 되려면 어린이 포교가 잘돼야 한다는 확신이 섰지요. 그래서 지역에 불교유치원 하나 번듯하게 잘 운영할 수 있을 비구니스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총림선원과 원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탁명 스님을 떠올렸지만, 그때 당시엔 미국에 가계시는 바람에 인연이 닿지 못했어요.”

적임자를 찾기 위해 여러 비구니스님들을 만났지만 마땅한 인연이 없었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위해
탁명 스님에게 ‘지정기탁’
“가등기 약속 이행하라”는
선학원의 내용증명 ‘황당’
“개인 재산 등록 요구하는
재단법인이 어디에 있는가”



좀처럼 진전이 없던 어느 해 부처님오신날, 총림선원을 참배하러 갔다가 탁명 스님을 만났다. 인사 후 첫마디에 “유치원 하실 생각 없으시냐”고 물었다. “생각은 있지만 여력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원력이 하나로 모이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어린이포교 원력에 공감해 더 큰 정성을 보탠 불자도 있었다.

조 이사장은 “애초부터 유치원을 총림선원에 기증하려고 했으면 마땅한 스님 찾느라고 헛수고할 일도 없이 보안 스님(분원장)께 드렸겠지만, 오직 유치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스님을 찾았기 때문에 탁명 스님이 아니면 안 됐다”며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셨던 탁명 스님이 오히려 유치원 운영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일들도 적지 않았기에 항상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총림사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한 유치원 · 어린이집은 빠르게 성장했고 지역 내 명실상부한 선호도 1위로 자리매김했다. 스님이 운영하는 유치원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은 조 이사장에게도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개인 부지를 아이들의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운영상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했다.

때문에 조 이사장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유치원 · 어린이집 명의를 등록하라고 했다는 말을 처음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전했다.

“제가 한평생 불자로 살았지만 총림사와 선학원이 어떤 관계인줄도 몰랐습니다. 총림사 땅을 몰래 팔았다기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선학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재단에 등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했지요. 아니 부처님 계신 땅도 몰래 팔아먹는데 유치원 · 어린이집은 ‘식은죽 먹기’로 팔아 없애지 않겠습니까?”

선학원은 조 이사장에게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탁명 스님이 선학원에 유치원 가등기를 약속했으니 조속히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탁명 스님 명의의 이행각서가 첨부됐지만 날인은 없었다. 탁명 스님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이행각서”라고 했다.

조 이사장은 결심을 굳혔다. “반드시 유치원 · 어린이집을 지켜야겠다”는 판단으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 유치원 · 어린이집 명의를 다시 회수했다.

조 이사장은 “사찰 땅을 주지스님 몰래 매각하는 데다가, 성범죄자가 이사장을 하는 재단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라며 “탁명 스님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학원에 주느니 차라리 내가 가져가서 부처님 포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도 재단법인이 개인의 재산 등록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황당하지요.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 명의를 회수해야만 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탁명 스님이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안정적으로 유치원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저라도 나서서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이사장은 “선학원은 유치원 ·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동안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단지 탁명 스님이 총림선원 창건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비상식적인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환수된 고운사 ‘사십이수관음도’

도난 성보 ‘42수관음도’ 본 자리 고운사로 환수

고운사 부처님오신날 맞아 공개
1989년 도난…사립博서 은닉해

도난됐던 성보문화재 고운사 ‘사십이수관음도’가 환지본처됐다. 고운사는 이를 기념해 부처님오신날에 환수 성보 ‘사십이수관음도’를 일반에 공개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는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환지본처한 성보 ‘사십이수관음도’를 5월 8일 봉축법요식에서 사부대중에게 공개한다.

‘사십이수관음도’는 1989년 1월 13일 고운사 극락전에서 도난 후 2016년 10월 서울 종로의 한 사립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돼 2017년 9월 20일 최종 회수됐다. 그동안 불교중앙박물관이 보존해 왔으며 올해 3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에 전시됐으며, 고운사로는 3월 20일에 돌아왔다. 도난된 지 33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불화는 여래상 2구를 품고 있는 42개 대수인(大手印)을 한 천수관음보살이 연화대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통상 42개의 손으로 표현되며 손마다 눈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수많은 중생을 살피고 구제하기 위함이다.

불화 속의 보살은 갸름한 얼굴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가느다란 팔과 손가락이 섬세하다. 가슴 앞의 8개의 손은 선정인, 설법인, 합장인 등을 하고 있으며, 왼팔은 길게 늘여 정병을 잡고 있다. 나머지 손은 17개씩 좌우대칭의 원형으로 배열하여 각각 지물을 들고 있다. 천수관음의 형상과 지물은 〈천수경〉 등의 의례에 맞춰 있으나 여래상 2구의 위치, 선정인 등의 수인, 정병의 크기 등에서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천수관음도’와는 다른 요소가 드러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4세기 고려시대 불상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장곡사 금동약사좌상 국보 지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이 국보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려시대 조성된 보물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5월 3일 밝혔다.

또한, 조선왕조 법전 〈경국대전〉과 정조의 한글편지, 천문도로 만들어진 ‘신구법천문도 병풍(新舊法天文圖 屛風)’ 등 10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고려 후기의 유일한 금동약사불상이자 단아하고 정제된 당시 조각 경향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발원문에는 1346년(고려 충목왕 2)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있어 고려 후기 불상 연구의 기준 연대를 제시해주고 있다.

고려 후기 불상조각 중 약합(藥盒)을 들고 있는 약사여래의 도상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중요한 문화재다. 또한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 비례감이 알맞은 신체, 섬세한 의복의 장식 표현 등 14세기 불상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국보로 승격 · 지정예고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가로 10m가 넘는 긴 발원문에는 약 1117명에 달하는 시주자와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는 고려 시대 단일 복장발원문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명을 담고 있다. 특히, 발원문을 지은 승려 백운(白雲)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자 ‘직지’로 잘 알려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377년)을 편찬한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과 동일인물로 추정돼 그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서 매우 의미가 깊다.

문화재청은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은 미술사 뿐 아니라 불교사,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14세기 중반의 역사상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하기에 예술 · 역사 ·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등 11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학교법인 광동학원 차기 이사장 초격 스님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돼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조계종 제25교구 종립 학교법인인 광동학원 차기 이사장에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4월 29일 남양주 광동고 법인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이사장에 초격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차기 이사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운허 스님의 원력으로 1946년 설립됐다. 당시 운허 스님은 일찍이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후학양성과 중생제도에 뜻을 뒀고, 해방 직후 봉선사 교구본말사 사찰 소유 전답 약 59만 평과 임야 약 450만 평을 출자해 ‘광동초급중학교’를 설립했다. 바로 광동학원의 모체다.

광동학원은 1948년 제1회 졸업생 21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70여 년 전통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4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광동학원은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자리매김하는 등 명문사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산하에 남양주 ‘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을 운영 중이다.

차기 이사장 초격 스님은 “광동학원 건학 100년을 바라보며 세계 속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설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길에 봉선사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토마을 간월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내
봉 정토마을 간월사 적멸보궁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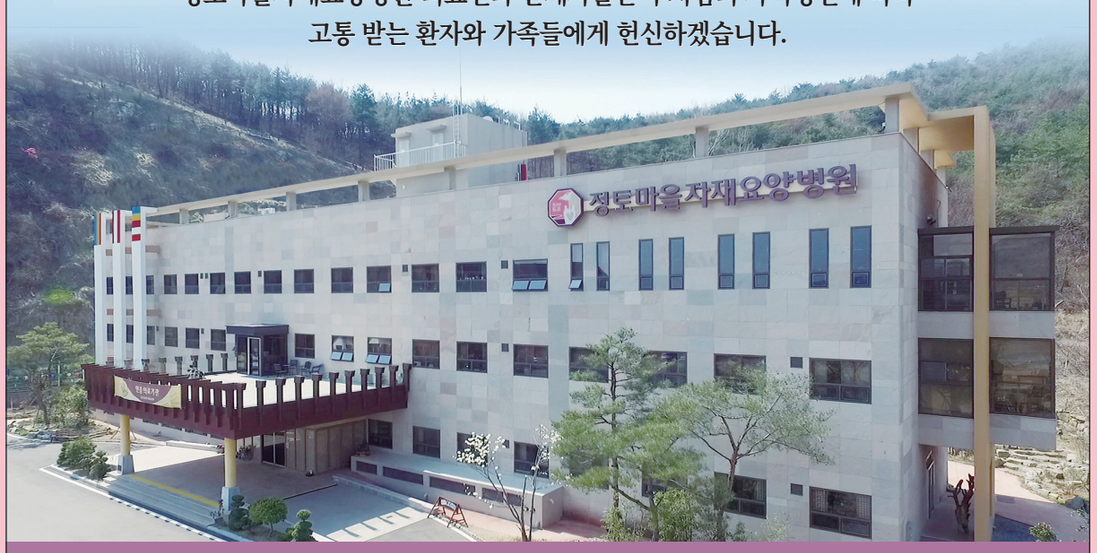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40 정토마을 간월사 대표번호 052)255-8588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재)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라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석남사 부근) 입원상담 대표번호 052)255-8400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상담 052)255-8457